

그리스도인: 무엇하는 사람이야?

성경말씀: 막10:35-45

지난 해 10월경부터 예배당 문제, 400주년 기념관 출간 마감, 침체기, 12월말부터 불면증 4개월 약 복용, 하나님의 은혜로 약도 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논현동 소래 예배당 이전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재정, 기도, 물리적 도움으로 무사히 이전함.

이전한 후에도 지난 1달 동안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영상, 음성, 세무 관계, 은행, 보험)로 고군분투 지난주에는 의욕 상실, “주중에 할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한다”, “왜 내가 이런 일까지 다 해야 할까?” 지금까지 성경책, 책들, 인터넷 사이트 개설 관리, 설교, 강해 등 바쁘게 살아왔다.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자 일에 대한 회의가 생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끝이 없는가?

누가복음을 읽고 위어스비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On Being a Servant of God) 읽음, 20세기 설교의 대가, 목회, 단체의 리더, 100여 권의 저자, 현재 80세가 넘은 분, 30가지 소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고 있는가?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사랑의 통로로 일하는가?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가? Ministry(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막10:45, 섬기는 자로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배경

마가복음: 이방인 대상,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초점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 왕국 선포, 유대인들의 거절, 드디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심. 처형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사야서 42-53장의 고난 받는 종 사50:5-9, 얼굴을 부딪들같이 굳게 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

예수님의 예고

1차 막8:31, 베드로의 책망

2차 막9:31, 제자들의 위대한 자 논쟁

3차 10:32-34: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개입, 정죄, 조롱, 사형, 부활

이런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 초점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35-37)

35-37,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20:20-21에는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들들을 대신해서 간구한 것으로 나옴.

이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살로메와 두 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마19:28).

그런데 이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파악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 약속은 재림의 약속

십자가를 통과한 뒤 영광의 관이 있음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가? ★★★

38절: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잡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나와 동일시 될 수 있느냐? 동일한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행12장)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가 된다.

이들은 자기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

이들은 세상의 방법은 아는데 하늘의 방법은 모른다.

이들은 마귀의 방법대로 구하였다. 마귀는 왕좌를 구하다가 추방당하였다(사14, 겔28).

이들의 요청에 따른 결과(41절)

이들이 육적인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자 나머지 열 제자가 분개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명심해야 한다. 리더들이 육적인 권세와 권위를 추구하면 분열이 생긴다. ★★★
누가 가장 큰가?

42-43절,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로마 사람들의 치리자들처럼 행세하려 하였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은가?(총회장, 노회장)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의 회개 고백: 아들 세습, 1조원 재산

예수님의 충고(43절)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크게 되는 것은 다 나쁜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에서 오물같이 찌꺼기같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기업 총수, 군인, 교수, 의사
다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디모데(벧전5:5-6)
특히 교회에서 리더들은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교회의 필요, 말없이 섬겨야 한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예수님의 결론(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며 심지어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 ★★★

사도 바울의 일생: 사도행전, 서신서들을 보라.
섬기는 데 끝이 있을까? 없다.
섬기고 섬기고 섬겨도 끝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웠다.
지난 20년간 섬기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 죽기까지 섬겨야 한다. 내 것을 추구할 틈이 없다. ★★★

적용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즉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빌2:5-11
이 교훈을 배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그분을 섬긴다(요19:25).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섬기는 리더가 되자.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

그리스도인의 섬김(Christian Ministry)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된다.”

“Ministry takes place when divine resources meet human needs through loving channels to the glory of God.”